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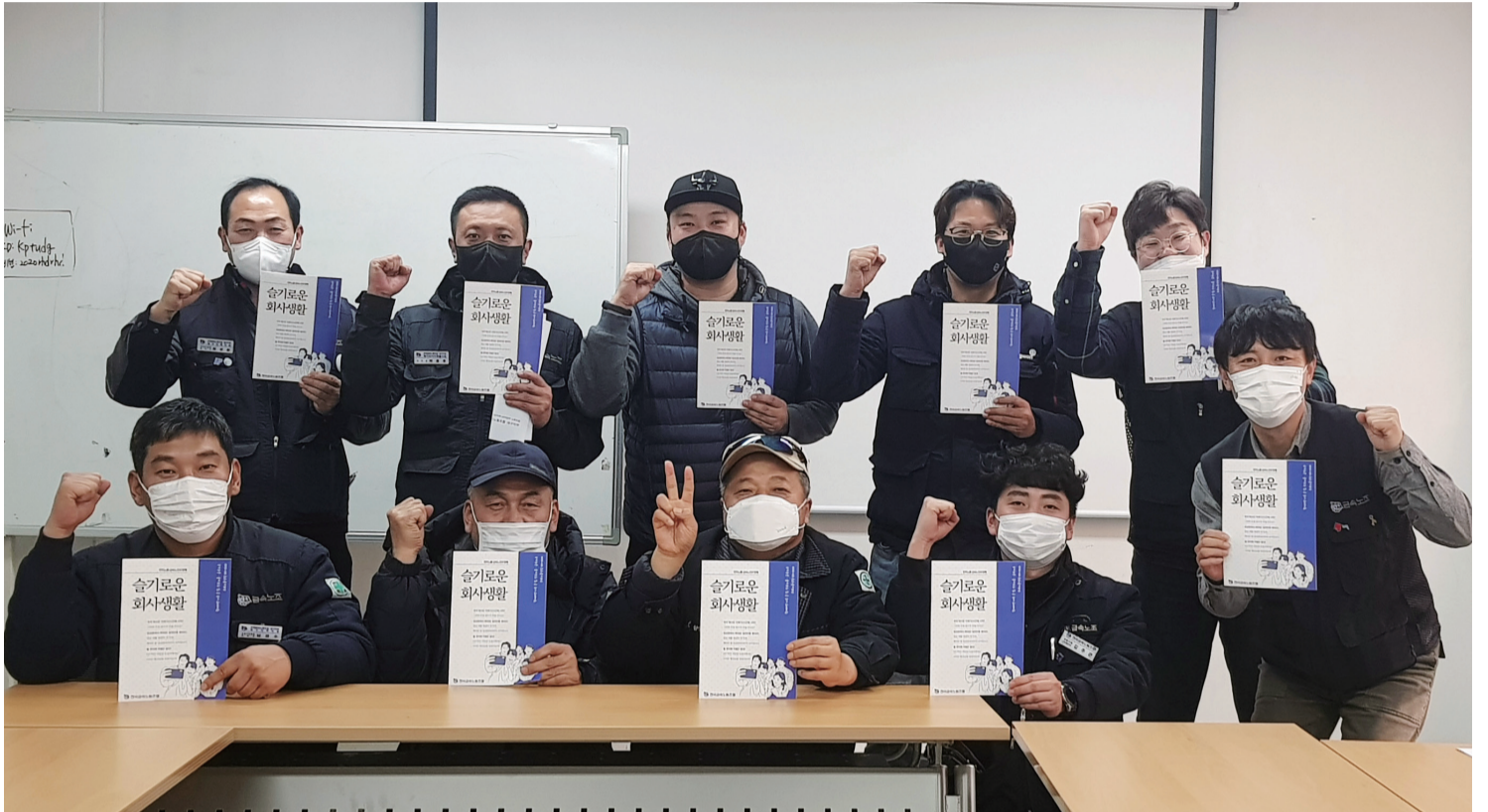
- 2면 힘 있는 노동조합, 든든한 우리 편. 그래, 금속노조
- 3면 실전 노동법 / 노동자가 알아야 할 올해 달라지는 노동법률
- 4면 노동안전 칼럼 / 휴식 시간에 갈 데가 없다고요?
- 5면 전국 소식 / 거제·통영·고성, 부산양산, 시흥안산, 대전충북, 광주전남, 서울 남부, 인천
- 6면 이주노동자 / “우리는 We are 사람이다”
- 7면 독자투고 / 영화 <태일이>와 노동조합
- 8면 우리네 맛집 옛날원대막국수·자작나무숲의 투데이 / QR코드 활용 꿀팁



바지락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면 세상이 즐거워져요

바지락은 네는 사람들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2021년 누구보다 바쁘게 활동한 지부입니다. 매회 평균 30명이 넘는 대구지부 조합원들이 계명대역, 성서공단역, 영남대 벤처창업관 앞, 3호선 공단역, 대곡역 대구은행 앞 등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출동했습니다.

구지를 포함한 달성공단, 달서구와 성서공단, 경산진랑공단 등에 ‘임금체불, 고용불안, 직장갑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전화주세요’ 현수막을 200장 넘게 붙였습니다. 노동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소식지를 마스크, 물티슈, 볼펜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출근선전전이 있는 날이면 평소보다 1~2시간은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출근선전전하고 현수막 걸고 나서 상담전화가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해집니다. 바지런히 한 해를 보낸 평가를 나누고 2022년 새해 계획을 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좋은 노동조합할 권리, 더 많은 공단 노동자가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동조합 가입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간다운 ‘쉼’을 보장하라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정한 법이 생겼습니다. 휴게실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민주노총의 요구, 한 번 살펴볼까요?



▲ 관련 칼럼은 4면에 있습니다.

일터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카톡 채널 추가해 무료 노동상담 받고, 소식도 받아보세요.
#직장갑질 #해고 #임금체불 #인권침해 #고용불안



※ 홈페이지 주소 : 공단노조.com

[인천] 공단 수다방에 초대합니다

오픈카톡채팅방 부평공단 수다방과 남동공단 수다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평공단노동자누구나 #남동공단노동자누구나 #권리찾기 #무료법률상담 #사업장위법행위제보 #노동조합가입문의 #익명보장



부평공단수다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부평공단수다방



남동공단수다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남동공단수다방

힘 있는 노동조합, 든든한 우리 편. 그래, 금속노조

2022년 새해 당신의 삶과 일터를 바꾸는 일, 민주노총·금속노조가 함께합니다

우리 회사에는 노조가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까운 곳에 금속노조가 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제조업 부문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입니다. 기계,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철강업종 노동자들과 수리, 서비스, 콜센터, 판매 영업직, 사무·연구직, 식당노동자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전국 14개 지역지부, 18만 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직종, 성별, 국적, 나이와 상관없이 제조업 관련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금속노조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며 2021년 한 해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인천지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촉구 기자회견 열어



2021년 11월 19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일에 맞춰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아니면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지급하는 사업주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았는지, 임금이 체불되어도 어디서 어떻게 빠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2020년 임금체불 당한 노동자의 82.2%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인천지부는 임금명세서 교부 법제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교육·홍보사업을 진행하고,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꼼꼼하게 조사해 위반 사업장을 강력히 제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부는 인천시에 '임금·노동시간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관련 시스템이 미미한 중소·영세 사업장을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종로주얼리분회, 주얼리 노사상생협약 체결

지난 12월 29일, 서울 동부지역지회와 종로주얼리분회는 주얼리업종 교섭에서 사측과 공동합의했습니다. 서울 종로에 보석 세공공장 800여 개와 귀금속 상가 1,000여 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귀금속이라는 화려한 이미지 뒤에 귀금속을 만드는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유해물질에 노출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서 주얼리업종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권 증진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노·사가 주얼리 집적지역 공동휴게 공간 마련을 정부·지자체에 공동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뿐 아니라 인근 동종 업종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뒀습니다.

광주전남지부-관계 사용자 사회공헌 기증식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2월 29일 지부 집단교섭에서 합의한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했습니다. 8백만 원 상당의 현물을 이주노동자 단체와 노동실업센터 등 네 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지부는 지난해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사망 규탄 1인 시위, 광주 비닐하우스 숙소 화재 규탄 기자회견, 전남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참여, 양식장 백혈병 이주노동자 지원, 임금체불 이주노동자 사건 지원, 대불산단 산재 이주노동자 지원 등 지속적인 연대사업과 실천 행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화순 도공농공단지, 담양 금성농공단지,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나주 혁신산단 등 전남농공단지에서 선전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등과 최저임금 실태조사 사업 등을 추진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못한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삶과 일터를 바꾸는 일, 민주노총·금속노조가 함께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연락하세요.

☎ 전국 어디서나 노조가입·노동상담 1811-9509

! 노동자가 알아야 할 올해 달라지는 노동법률

[실전노동법] 최저임금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1,914,440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시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시급은 9,160원 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입니다. 2018년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2년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 (약 190,000원)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최저임금 산입하며,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약 38,000원)를 제외한 나머지를 최저임금 산입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비율이 지난해보다 커졌기 때문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라면 꼼꼼히 살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행정해석 변경, 연차·미사용수당 줄어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월 16일부터 연차휴가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1년간(365일) 노동을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1년의 노동을 마친 다음 날(366일째) 노동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변경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주는 15일의 연차휴가(근기법 60조 1항)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1년 노동을 마친 다음 날(366일째)까지 노동관계를 지속한 후 퇴직해야 청구 가능.
- ▲ 계속 노동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주어지는 1일의 연차휴가(2항)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1개월 노동을 마친 다음 날까지 노동관계를 지속한 후 퇴직해야 청구 가능.

- ▲ 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 정규직 노동자가 마지막 근무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와 4항에 따른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 불가능.

☑ 대지급금(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재직 노동자까지 지급

소액 대지급금(체당금 용어 변경)을 받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했으나, 법원을 거칠 필요 없이 고용노동청 진정과 조사를 통해 마지막 3개월 동안의 임금, 휴업수당, 마지막 3년 동안의 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확정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 3개월에서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던 소액 대지급금 지급 기간이 빠르면 1~2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지급 대상은 퇴직 노동자에 한정했었으나, 재직 노동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는 동안 소액 대지급금 지급은 1회로 제한합니다.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시 처벌

사용자와 친족인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에 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사용자와 친족에 한정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 위반 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2022. 5. 19.부터)

사업주가 채용·임금·승진·해고 등에

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조치의무와 불이익조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피해노동자는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 1. 27.부터)

2021년 초 제정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합니다.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고,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법인에 벌금을 부과합니다. 5년 이내 재범 시에 형의 1/2까지 가중합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에 50억 원 이하 벌금.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 :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에 10억 원 이하 벌금.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한 '휴게 시설의 설치' 법안을 8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아는 만큼 보이고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무료 노동상담,
 노동조합 가입문의 1811-9509

휴식 시간에 갈 데가 없다고요?

[노동안전 칼럼] 휴게실 설치 의무 시행령, 현장 요구 반영해 제정해야

〈바지락〉을 읽고 계신 독자님, 지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돌아보세요. 일하다 휴식 시간이 되면 어디서 쉬나요.

한 대선 후보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월급을 아무리 적게 받아도 일만 할 수 있으면 좋아할 것처럼 말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도구나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일하다 힘들고 피로를 느끼면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생활은 쫓기듯 돌아가고 있네요. 서비스직도, 생산 현장도, 사무직, 업무도 ‘시간이 돈’입니다. 관리자, 상급자, 사장처럼 회사 조직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쉴 때조차 내가 무엇을 하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듯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4시간 노동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법으로 정해놓고 단속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쉴 권리를 고용주가 보장하지 않을 위험성이 크기에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겠죠.

이 조항은 한 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법에 쉬는 시간을 정해놓았다고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쉬는 시간을 턱없이 짧게 주거나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곳도 많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2022년 8월부터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휴게시설이 ‘기준’에 미달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법 조항이 생겼지만 실제 어디에, 얼마의 크기로, 어떤 시설이 있어야 휴게실이라고 할 수 있을지 시행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잘 제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업주들이 현장 노동자들은 들어갈 일조차 없는 탕비실을 휴게실로 설정하거나, 직원 규모보다 턱없이 작은 공간을 휴게실이라고 해놓고 구색만 맞출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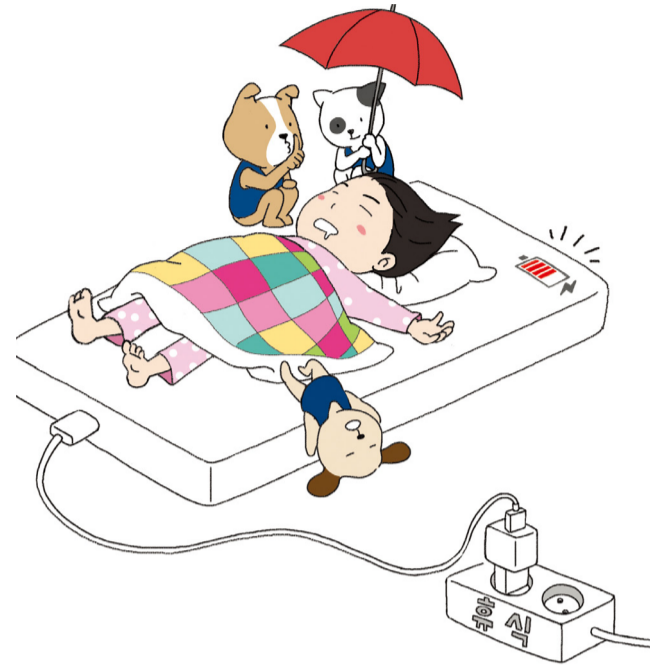
법 취지를 고려해 쾌적하게 휴식을 취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고, 난방, 냉방, 환기시설 등 기준에 관해 명시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이 미비하면 작은 규모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설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큼니다.

비정규직 휴게실을 창고나 주차장에 만들어놓고, 공간이 부족하면 하청노동자의 휴게실부터 없애기도 합니다. 코로나 19 방역 때문에 노동자들이 모이면 안 된다고 휴게실을 폐쇄하는 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좁은 실내공간에 다닥다닥 붙어서 일하는 작업환경은 그대로 둔 채 휴게실만 없애면 된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화장실이나 계단 아래, 빌딩 옥상, 너무 좁아서 교대로 한 명씩만 앉을 수 있는 공간에 휴게실이 있는 예도 있습니다.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고, 비가 오면 물이 들어차고 곰팡이가 스는 곳을 휴게실이라고 우기는 일도 많죠. 휴게실이 피로를 풀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차별을 확인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상처를 입는 공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소, 건설현장, 화물기사, 인터넷 설치기사처럼 외부에서 일하거나 이동이 잦은 노동자들도 휴게실이 필요합니다. 건설현장에서 한여름에 선풍기 한 대만 돌아가거나, 거대한 조선소는 휴게공간이 너무 멀어서 이용을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2022년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가 되면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할까요? 2018년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휴게시설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 ①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 ②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 ③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



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 ④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을 보장한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을 구비하고 있을 것.

어떤 일을 하든, 회사 규모가 크든 작든 제대로 쉴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주들은 인원이 적은 사업장은 휴게실 설치를 예외로 해달라거나, 과태료 같은 불이익은 부담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용형태에 따라서 휴게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파견, 계약, 사내 하청노동자들의 휴게실은 원청이 책임지고 설치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휴게실 설치 위치부터 크기, 편의시설까지 원청의 협조나 지원 없이 하청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휴게실 설치는 어렵습니다.

휴식 시간에 갈 데가 없다고요? 제대로 쉴 수 있는 권리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에 노동자 수, 고용형태, 작업장 조건 등의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법과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어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터가 바뀌도록 정부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전달하고 압박해야 합니다.

전수경 _ (노동건강연대)

금속노조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전국 소식] 경남 거제·통영·고성, 부산양산, 시흥안산, 대전충북, 광주전남, 서울 남부, 인천

경남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아침 선전전



지난해 여느 곳보다 노동조합 가입 열기로 뜨거웠던 대우조선에서 경남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아침 선전전을 했습니다. 드넓은 조선소에 노동조합할 권리를 높이기 위해 조선하청노동자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올해 더 많은 조선하청노동자와 함께하고자 합니다.

부산양산지부 동부산지회 모든 조합원 공단선전전



동부산지회는 11월 한 달 동안 전체 조합원이 돌아가며 공단 퇴근 선전전을 했습니다. 동부산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시흥안산지역지회 '공단노조' 달력 제작,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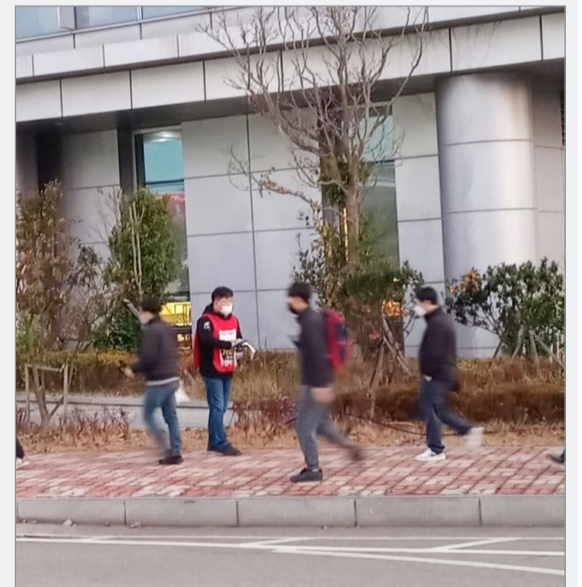
시흥안산지역지회는 '임금체불, 고용불안, 해고, 직장갑질 등 각종 노동상당' 광고를 실은 달력을 제작해 반월, 시화, MTV 공단의 식당 등에 1,500부 배포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대전충북지부 공단 선전전



대전충북지부는 기자회견과 지역·공단 선전전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부, 대전, 천주, 음성, 충주, 세종으로 권역을 나눠 바지런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전남조선하청지회 현대삼호중공업 정문, 서문 선전전



전남조선하청지회는 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 현대삼호중공업 정문과 서문에서 출근선전전을 했습니다. '금속노조와 함께 노동자 존중 일터로'를 새긴 마스크를 나눠주었습니다.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길거리 버스킹 선전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여러분을 만나 「직장사이다」 소식지를 나눠주었습니다. 뮤지션유니온과 함께 '거리는 지키되 마음은 가까이'란 이름의 길거리 버스킹을 하니 바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여유를 느껴보세요.

인천지부 공단 선전전



인천에 공단이 참 많습니다. 선학역, 부평역, 가재울역, 동춘역, 거북시장, 갈산역, 염골공원, 나인텐벨리, 검암역, 남동공단 ... 정말 많은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바지런히 활동했습니다. 인천지부 확대미조직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사회단체, 진보정당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We are 사람이다”

[이주노동자] 베트남 노동자의 세계 이주노동자 대회 참가기

편집자의
말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보신각에서 캄보디아 노동자 속행 씨 1주기 추모제와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세계 이주노동자 대회에 참가한 베트남 여성활동가가 참가기를 보내왔습니다.

베트남은 겨울에도 한국처럼 춥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추운 날에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가 죽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행 씨가 생각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이주노동자들이 아직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 서울로 가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하라”, “마음대로 회사를 옮길 수 있게 하라”, “미등록 만드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라고 외치고 왔습니다.

대구에서 모두 47명이 참가했습니다. 몽골에서 온 나라 언니는 15명이 넘는 몽골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KEB하나은행이 와서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두 명 밖에 못 왔습니다. 그렇지만 몽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스리랑카 음식과 삶은 달걀을 만들어 왔습니다. 47명 모두에게 하나씩 나눠주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야간작업하고 오기도 했고 경북의 고령, 경산, 성주에서도 서울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까 마음이 참 든든했습니다.

점심시간은 언제나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백신패스를 시작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휴게소를 이용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으니 본인 인증을 할 수 없습니다. 종이로 된 증명서를 받으려면 동사무소나 보건소를 가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종이 증명서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문제가 된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조가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무슬림 친구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힌두교 친구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치킨 도시락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언제쯤이면 우리도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인정받



이주노동자도 정주노동자도 모두 사람입니다. 그러니 죽거나 다쳐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됩니다. 일한 만큼 그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We are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보신각에서 캄보디아 노동자 속행 씨 1주기 추모제와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으면서 따뜻한 밥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을까요.

1시 30분 즈음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큰 빌딩을 보자 감탄하면서 사진을 찍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서울은 대구보다 위쪽 지방인데도 많이 춥지 않았습니다. 집회 장소에 따뜻한 햇볕도 있었습니다. 속행 씨 1주기 추모식에서 스님들이 기도를 외웠을 때 저도 속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한국에서 속행 씨와 같은 사람들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청와대로 행진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불법, 불법 하지 마라, 하지마라”, “Free job change.”

최저임금만 주면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

있고, 일거리 없으면 쉽게 해고해도 되고, 죽거나 다쳐도 정주 노동자에 비해 적은 합의금을 줘도 되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장들에게 최고의 노동력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이주노동자 없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남의 나라에서 일자리를 뺏으러 온 사람 취급을 당하거나, 가난한 나라에서 온 불쌍한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이유도 없이 혐오세력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We are laborers. We are one.” “우리는 노동자다. 노동자는 하나다.” 네팔 노동자가 외칩니다. “We are 사람이다.” 순간 모두 큰소리로 웃었습니다. 이주노동자도 정주노동자도 모두 사람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모두 사람입니다.

그러니 죽거나 다쳐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됩니다. 일한 만큼 그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We are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독자투고] 영화 <태일이>와 노동조합



노 노을보다 진한
핏빛으로 타오르던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의 뜨거운 심장

동 동료들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조 조합을 통해
빈곤한 현실을
넘어보려 했던...

누구보다 뜨겁지만
누구보다 외로웠던
생사의 투쟁

혹여
우리들의 손길이라도

더해지길
행여
우리들의 마음이라도

합 합해지길 바라던
간절한 연대의 소망은
아니였을까요.

피우지 못한 채
산화되어버린
반세기 너머
묻혀버린
스물두 살
젊은 꿈

연대의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노동자 가슴에

태일이의 꿈이
활짝 피는 그날을
오늘도 기다려 봅니다.

부산의 한 노동자



영화 <태일이>는 1970년 평화시장에서 부당한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뜨겁게 싸웠던 청년 '전태일'의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부산의 한 노동자가 지난 11월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주최 <태일이> 단체관람과 '노동조합' 4행시 공모에 아쉽게 응모하지 못하고 <바지락> 독자투고에 기고해주었습니다.

이 노동자는 전태일에 대해서 잘 몰랐거나, 관심이 있었지만 알 기회가 없었던 분들께 꼭 보라고 추천했습니다. 또한, 51년 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며 분신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환경과 스물두 살 전태일의 정신이 현재 얼마나 변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2022년 1월에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태일이> 응원 상영회를 무료로 진행한다고 하니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확인 후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울리는 글 기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바지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자투고를 모집합니다

<바지락>에 독자 여러분의 사진과 글을 기고해주세요. 사진과 글의 주제나 분량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담은 사진과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투고한 사진과 글은 <바지락> 기획단이 심사해 <바지락>에 편집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독자분께 80,000원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접수 방법



이메일

liandai21@naver.com 으로 글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번 겨울, 인제 자작나무 숲으로 떠나자

[우리네 맛집] 인제 자작나무 숲길 주변 맛집, <옛날원대막국수>, <자작나무숲의 투데이>

겨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여행지가 어디일까. 겨울 바다는 조금 물리고, 겨울 산은 부담스럽고, 좀 신선한 곳 없을까 고민하다 인제 자작나무 숲으로 떠나기로 했다. 여유 있게 거닐기 좋고 이국 같은 풍경에 ‘갬성 사진 맛집’이라니, 딱이다.

좋은 여행에는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다. 근처의 맛집을 검색해보니 <옛날원대막국수>가 눈에 띈다. 자작나무 숲과 가깝고 평점이 좋다. 그래봤자 막국수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가보니 주인의 지극정성이 보통이 아니다. 직접 담근 김치는 배추, 무, 고춧가루를 누가 생산했는지까지 적어놓았다. 자체 방앗간에서 매일 필요한 만큼 메밀을 직접 제분해 막국수를 만든다고 한다. 재료가 떨어지면 영업 마감이라고 하니 서둘러 오길 잘했다. 40년 전통에 누가 될까 봐 TV 촬영에 응하지 않고 분점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

맛이 예술이다. 직접 찐다는 시골 들기름을 한 바퀴 두르고 설탕 한 숟가락에 식초와 겨자를 약간 넣어 먹으니 먹으면서도 군침이 돌아 혼났다. 비빔 막국수로 먹다가 면과 육수 추가해서 물 막국수로도 먹으려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냥 물 막국수를 하나 더 시켰다. 감자전은 손바닥만 한 게 세 장이 나오는데, 같이 간 친구가 이렇게 쫄깃한 감자전은 처음이라며 호들갑이다. ‘아, 행복하다.’



자작나무 숲을 돌고 나와 입구 근처에 있는 <자작나무숲의 투데이> 카페에 들러보는 것도 좋다. 사장님이 직접 만든 자작나무 목공품을 감상하며 찬찬히 단호박식혜를 마셔도 좋고, 설악산자락 풍경이 예술인 테라스에서 개냥이의 애교와 함께 오미자차를 마시는 것도 즐겁다.

**| 주소 | 강원 인제군 인제읍 자작나무숲길 1113 (옛날원대막국수)
강원 인제군 인제읍 자작나무숲길 770 (자작나무숲의 투데이)**
※ 두 곳 모두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다.

이희태 /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QR코드 활용 꿀팁

코로나 19 세계 유행이 길어지면서 익숙해진 것 중 하나가 ‘QR코드’입니다.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QR코드로 출입 인증하셨죠? 그동안 내 QR코드를 찍히기만 했다면, 이제 내가 QR코드를 찍어봅시다. 카톡이랑 유튜브만 하려고 스마트폰 쓰는 거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찍는 방법]

1단계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실행해 후면 카메라로 설정합니다.

2단계

스마트폰 렌즈로 아래 QR코드를 비춥니다.

3단계

폰이 QR코드를 인식하면 화면 상단에 알림이 나타납니다.

4단계

알림을 누르면 QR코드 연결 링크가 열립니다.



2022년 노동자 권리 찾기 안내 수첩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의 기본내용을 알기 쉽고 보기 쉽게 정리해놓았습니다. PDF 파일로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 권리, 아는 만큼 보이고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지난 <바지락> 다시 보기

▲ 2021년 8, 9월호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등
▲ 2021년 11, 12월호 <임금명세서 지급의무 시행, 이렇게 대처합시다> 등
지난 <바지락>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노동상담 페이지

온라인으로 노동상담을 하고 싶다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임금명세서 의무 지급이 시행되는데요, ‘영망진창 임금명세서’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주노동자 신문 <이주노동자 바지락>

주변 이주노동자 동료들에게 많이 홍보해주세요. 중국어, 미얀마어, 태국어, 벵갈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크어, 베트남어, 네팔어, 스리랑카어, 한국어로 제작했습니다.